

KIA 스프링캠프 전열 정비... 본격 경쟁 지금부터

**‘마무리 후보’ 김세현, 무릎 통증에 조기 귀국...합평 2군 캠프행
양현종 뒤늦은 합류...선수단, 자체 홍백전 등 시즌 준비 돌입**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에 ‘엔트리 변동’이 있다.

가정사로 캠프 출발이 늦어졌던 ‘에이스’ 양현종이 선수단에 합류했고, ‘마무리 후보’ 김세현이 몸 상태 불합격으로 조기 귀국했다.

미리 오키나와로 건너가 자체 캠프를 치르던 윤석민, 김주찬, 안치홍 등을 제외한 KIA 스프링 캠프단은 지난달 31일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라 2019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오키나와로 향한 선수들 사이에서 양현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태어난 셋째 아들의 건강 문제로 양현종의 출발이 늦어진 것이다. 마음 졸이며 아들의 수술 결과를 지켜본 양현종은 지난 4일 오키나와로 들어가 6일 첫 훈련을 시작했다.

마음의 짐을 털고 에이스가 합류하면서 KIA 마

운드에 무리가 실렸지만 예상치 못했던 ‘조기 탈락자’도 발생했다.

캠프 시작과 함께 김세현이 몸 상태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서 방을 뺐다.

캠프 첫날이었던 1일 선수들은 일상적인 훈련을 소화하는 대신 자체 홍백전에 나섰다. 캠프 시작과 함께 실전 일정을 배치한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KIA는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몇 차례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선수단은 기초 체력 측정과 4km 달리기에서 나서 땀을 흘렸다.

체력 테스트는 스프링캠프를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선수들은 휴식기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자율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 KIA는 따로 체력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다. 공식적인 체력 테스트는 없었지만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비시즌을 보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졌고, 캠프 첫 일정으로 홍백전이 잡히면서 선수들은 몸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1일 홍백전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진행됐지만, 캠프 첫 단이 끝나기도 전에 김세현의 귀국이 결정됐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 완벽하게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난 3일 김세현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세현의 다음 행선지는 합평이 됐다.

김세현은 합평에서 재활 훈련과 체력 훈련을 진행한 뒤 ‘합격 판정’을 받으면 2월 중순께 대만 2군 캠프로 이동할 전망이다. 김세현은 대만 캠프 연습 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오키나와 재합류를 노리게 된다.

한편 KIA 선수단은 설날이었던 지난 5일 오키나와 캠프에서의 첫 휴식날을 보낸 뒤, 6일 훈련을 재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세현

팻딘, 미네소타와 마이너리그 계약

2년 동안 KBO리그 KIA 타이거즈에서 뛰 좌완 팻 딘(30)이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

팻 딘은 5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9시즌에 미네소타에서 뛰게 됐다. 계약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썼다.

그는 “미네소타는 2016년에 내게 메이저리그에서 뛰 기회를 준 팀”이라고 전하며 “2년을 한국에서 보낸 뒤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와 기쁘다. 이 놀라운 팀에서 다시 뛰 올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팻 딘은 2010년 미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서 미네소타에 3라운드에서 지명됐다. 2016년에는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아 1승 6패 평균자책점 6.28을 올렸다.

2017년 무대를 한국으로 옮긴 딘은 그해 9승 7패 평균자책점 4.14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고 재계약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6승 7패 2홀드 평균자책점 6.26으로 부진했다.

KIA와 재계약하지 못한 딘은 미네소타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고, 익숙한 곳에서 메이저리그 재입성을 꿈꾼다.

/연합뉴스

류현진, MLB 선발투수 평가 53위

팬그래프닷컴

팬그래프닷컴이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을 2019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53위로 평가했다. 꽤 높은 순위지만, 지난해 류현진 성적을 보면 다소 박한 평가이기도 하다.

팬그래프닷컴은 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평가를 업데이트했다. 판타지랭킹을 즐기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다.

120위까지 정한 순위에서 류현진은 53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2018년 15경기에 등판해 82.1이닝을 소화하며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올렸다. 놀라운 성적이었지만 부상 탓에 경기 수, 이닝 소화 가 많지 않았다.

팬그래프닷컴은 류현진의 부상 이력에 주목했다. 2019년 류현진의 예상 성적을 88이닝 6승 5패 평균자책점 3.89로 측정할 것도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선발투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류현진이 개막 후 부상 우려에서 벗어나면 순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팬그래프닷컴은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를 선발투수 평가 1위로 선정했다.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과 크리스 셰일(보스턴 레드삭스)이 2, 3위에 올랐고 저스틴 벌랜더와 게릿 폴(이상 휴스턴 애스트로스)이 뒤를 이었다. 클레이턴 커쇼는 10위로 평가됐다. 워커 볼러가 14위, 로스 스트리플링이 36위, 리치 힐이 45위, 마에다 겐타가 46위에 오르며 팀 동료 류현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투수 중에서는 다르빗슈 유(시카고 컵스)가 2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나카 마사히로(뉴욕 양키스)는 33위, 기쿠치 유세이(시애틀 매리너스)는 58위에 올랐다.

KBO리그 SK 와이번스에서 뛰다 애리조나 다리아몬드백스에 입단한 메릴 켈리는 10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PGA ‘뉘시꾼 스윙 최호성’ 집중 조명

홈피에 ‘주목할 선수’로 소개...출생 등 필드 안팎 이야기 실어

“그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물을 사랑한다”, “그는 잡지를 보며 골프를 배웠다”

생애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출전을 앞둔 ‘뉘시꾼 스윙’ 최호성(46)이 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집중 조명됐다.

PGA 투어는 6일 홈페이지에 ‘여러 면에서 독특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호성은 단순히 그의 스윙 이상”이라며 필드 안팎의 면면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남다른 스윙 동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최호성은 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열리는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선다.

현장에서 그를 만난 선수들이 소셜 미디어에 ‘아이돌’로 표현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대회 전부터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GA 투어 또한 대회의 ‘주목할 선수’로 그를 전면내 내세운 셈이다.

홈페이지 글에는 넘겨지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그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났으며, 포항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다는 등 ‘출생’부터 세세하게 설명됐다.

수산고에 다닐 때 참치 해체 실습 중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첫 마디를 잃은 점, 안양의 골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25살에 뒤늦게 골프에 입문해 잡지를 통해 골프를 배운 사연도 나왔다.

2001년 본격적인 프로 데뷔와 2008년 코리아 투어 첫 우승, ‘뉘시꾼 스윙’의 탄생 계기 등도 빠지지 않았다.

최호성은 “특이한 스윙이 나온 건 프로 선수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젊은 선수들은 강하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드는 나는 뭔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골프를 하게 된 평범한 사람”이라며 “세계, 특히 지금은 미국에서 팬들이 지켜봐 주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준환, 김연아 계보 잇는다

美서 ISU 4대륙 선수권 내일 개막
한국 남자 피겨 싱글 첫 메달 도전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차준환(휘문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첫 메달에 도전한다.

차준환은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막하는 2019 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 이준형(단국대), 이시형(판곡고)과 함께 우리나라 남자 싱글 대표로 출전한다.

차준환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열린 회장배 랭크대회에서 4회전(워드플름) 점프를 앞세워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하며 4대륙 대회 출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이 대회를 건너뛰었던 차준환에겐 첫 출전이다.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의 선수들이 겨루는 연례 대회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섯 차례 열렸지만, 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는 2009년 여자 싱글에서 우승한 ‘피겨퀸’ 김연아가 유일하다.

역대 대회에서 미국이 금메달 23개를 포함해 가장 많은 84개의 메달을 수확했고, 캐나다(60개), 일본(51개)이 뒤를 잇고 있다.

작년 12월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차준환은 이 대회에서도 한국 남자 선수 중 최초로, 또 남 녀를 통틀어서도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선다.

차준환의 메달 도전을 위협할 유력한 경쟁자는 우노 쇼마(일본)와 진보양(중국)이다.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미국선수권대회도 제패한 네이션 션은 이번 대회를 건너뛰기로 했고,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하뉴 유즈루도 출전하지 않는다.

두 선수는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준우승한 우노 쇼마는 큰 실수가 없다면 무난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펜딩 챔피언 진보양은 이번 시즌 그랑프리에서 사상대에 오른 적이 없어서 최근 성적만으로 차준환에게 밀린다.

차준환이 침착한 클린 연기로 키건 메싱(캐나다), 제이슨 브라운(미국) 등 다른 경쟁한 경쟁자들도 제친다면 메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여자 싱글에선 임은수(한강중), 김예림(도장중), 김하늘(수리고)이 출전한다.

이번 시즌 그랑프리 대회에서 한 차례 동메달을 차지한 임은수와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를 밟은 김예림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 기하라 리카(일본) 등과 겨룬다.

/연합뉴스

